



# 중국의 기업연금 개인소득세 개정 및 시사점

이소양 연구원

■ 12월 9일 중국 정부<sup>1)</sup>는 기업연금<sup>2)</sup> 활성화를 위해 기업연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기업연금 세법 개정안은 종업원의 각출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 시점을 기업연금 재원의 각출단계에서 연금지급단계로 이연시킴.
  - 현행 기업연금 세법은 기업의 각출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업원의 각출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음.
- 이번 세법 개정은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사적 사회보장체제 강화 조치로 분석됨.

■ 최근 공적 사회보장체제인 도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의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보장 수준이 낮아지면서 기업연금을 비롯한 사적 사회보장체제 강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2012년 전국 도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기금의 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1.0%p 상승한 21.9%를 기록하였으나 수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7.5%p 감소한 18.4%에 불과함.
- 또한 중국은 인구 고령화로 2020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7.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도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의 기금 고갈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 중국 사회과학원(CASS)에 따르면 도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의 소득대체율이 2002년 72.9%에서 2005년 57.7%로 크게 하락하였고, 2011년에는 50.3%를 기록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수준(55.0%)을 하회하기 시작하였음.

---

1) 중국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기업연금 개인소득세에 관한 수정안』을 발표하였음.  
 2) 2004년 도입된 중국의 기업연금은 도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을 보완해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임의가입이며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기업연금의 재원을 부담함.

■ 세법 개정으로 중국 기업연금기금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08~2012년 기업연금 가입자는 1,038만 명에서 1,847만 명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업연금 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1,911억 위안에서 4,821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기업연금 가입자가 도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자의 6.1%에 불과하고 기업연금 기금의 누적 적립금도 도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기금 누적 적립금의 20.1%에 불과해 기업연금시장의 성장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sup>3)</sup>
- 중신증권(CITIC)은 기업연금 가입규모가 향후 연간 약 2,000억 위안 증가하고 누적 적립금이 2020년까지 3.5조 위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중국의 사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 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인구 고령화와 재정 부담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 부문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경우 도시 종업원의 기업연금 가입 인센티브 확대로 사적 사회보장 체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공·사 간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사적 부문의 보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Sina, Xinhua 등)

3) 2012년 도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의 가입자는 3억 427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도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조 3,941억 위안임.